

하안거 해제법어 모음

한 여름 장마비가 지나간 산하에 푸른 잎들이 무성하게 산과 들을 물들였다. 수행에 멈춤이 없음을 하안거 기간 구도심을 불태운 남자와 재가불자들이 해제일을 맞아 만행에 들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비롯한 총림, 제방 선원의 스님들은 남자들에게 법어를 내리고 중단 없는 정진을 당부했다.(전문은 인터넷 현대불교·현불뉴스에 있습니다.)

만행길에서 경계를 만나 사자후를 토하라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섭현귀성(葉縣歸省) 선사에게 분양선소(汾陽善昭) 선사가 절을 하자 이에 물었습니다.

“그대는 조금 전에 어떤 도리를 알아차렸기에 나에게 절을 올렸는가?”

“그것은 제가 바로 본분의 목숨을 던진 경계였습니다.”

뒷날 이 말을 전해들은 경산지우(徑山智愚) 선사는 법상에서 주장자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봉황은 봉황을 낳고 사자는 사자를 낳는구나.”

“사자후”에 대하여 <증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獅子吼無畏說 百獸聞之皆腦裂

사자의 포효처럼 두려운 상대가 없는 말씀이여! 모든 짐승이 듣고서 하나같이 뇌가 갈가리 찢어지노라.

영가현각 선사의 이 법문을 듣는 순간 이것은 이미 뇌가 갈가리 찢겨지는 일입니다.

이것일까 저것일까 하고 분별한다면 그 순간 여우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갖가지 사된 견해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자의 몸에서 생긴 별레가 사자살을 파먹듯이 내 마음 속에 작은



망상은 점점 커져 결국 나를 잡아먹고 말 것입니다. 남자가 법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들을 수 있다면 헛소리도 사자후가 될 것이요, 남자가 탐욕에 물든 견해로써 법을 듣는다면 실사 사자후라고 할지라도 여우 울음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덕산 선사는 누구라도 문안으로 들어오기가 무섭게 사정없이 몽둥이를 휘둘렀고, 일제 선사는 학인이 방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고향을 내질렀습니다. 이런 사자후는 어두운 자들은 여우 울음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은 보리심이 대사자후요, 대비심이 대사자후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신묘년 하안거 한 철 동안 정진한 힘은 해제 이후 경계를 만났을 때, 과연 사자후가 나오는지 여우 목소리가 나오는지 만행길 위에서 스스로를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獅子兒 騰空擲擲 俊鶴子 不戀舊窠

사자는 허공으로 뛰어올랐다가 몸을 되돌려 던지고 날랜 매는 해묵은 보금자리를 그리워하지 않는구나.

깨침의 마음밭 쉽없이 가꾸도록 하라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깨침의 마음 밭에는 그 무엇이던 잘 자라지 않음이 없으며, 맺고 풀음이 또한 따로 없는 법이다.

하지만 업연이란 몸집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중생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돌고 돌아 무시무종(無始無終)이라 하였으니, 굼으면 배고프고, 피곤하면 잠 오기 마련이며, 진속의 경계 또한 분명한 것이다.

수좌들은 결제동안 이러한 여러 가지 경계를 이겨내고 득력을 쌓았으니 이제 사바로 나아가 또 다른 진속의 체험을 철저히 점검하여 흔들림 없는 마음밭을 쉽없이 가



꾸도록 하라.

世變難知朝夕事 海波不絕古今聲 諸法自性將涅槃 誰有智言無密意

세상의 변화는 아침저녁 일을 알기 어려운데 바다물결은 옛과 이제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구나.

모든 법의 자성은 장차 열반인 것이니 누가 지혜롭게 말은 하나 그 비밀의 깊은 뜻은 모르나네.

조주는 천을 알고 백을 깨달았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

운문 스님이 상당하여 말하되 “배워서 아는 사람도 있고 나면서부터 아는 이도 있다”하였다. 이때 어떤 수행자가 조주 스님에게 물기를 “학인이 처음 총림에 들어왔으니 스님께서 지시하여 주십시오” 하니 조주 스님이 말씀 하시기를 “죽을 먹었느냐?” 수행자가 대답하되 “예 먹었습니다” 하였다. 조주 스님께서 다시 말씀 하시기를 “발우를 씻어라” 하니 그 수행자가 언하(言下)에 홀연히 깨닫고 당장에 쉬어서 생사의 끝나는 곳을 알았다.

이곳에서 수행자들이 쉽지 않고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스님은 정진하는 힘이 뛰어나서 조주 스님께서 100근이 넘는 짐을 그 어깨에 실어 주었거늘 수행자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단숨에 생사의 끝자락을 달려가서 다시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마치 법왕(法王)의 지위를 범부에게 준 것 같다. 마음 속에 그 자리에서 태평해지면서 인자한 마음을 일으키고 자비한 원(願)을 실행하니 이는 배워서 아는 것이다.

조주가 사미 때에 은사스님과 함께 행각을 떠나 남전 스님에게 갔더니 마침 남전 스님이 누워 있었다. 예배를 마치니 스님께서 묻되 “요즘 어디서 떠났느냐” 조주가 대답하기를 “서상원에서 떠났습니다” “서상(瑞祥)을 보았느냐” “서상은 보지 못했으나 즐고 계신 부처님만 보았습니다” 하였다. 남전 스님이 일어나 묻되 “그대는 주인이 있는 사미인가? 주인이 없는 사미인가?” “주인이 있습니다” 남전



스님이 다시 물기를 “누가 그대의 주인이나” 조주가 “첫봄이 아직 추우니 바라옵건대 조실스님께서는 법체 만강하옵소서” 하니 남전 스님은 유 나를 불러서 이르기를 “이 사미를 특별한 곳에 인도하라”하였다.

다음 날 다시 와서 물기를 “어떤 것이 도(道)입니까” 하니 남전 스님은 일체 특별한 법을 쓰지 않고 진실 그대로를 조주에게 말하되 “평상심이 도니라?” 하였으니 조주가 이미 평상심을 깨달은 줄만 때 문이다. 조주가 다시 물기를 “그대로 닦아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남전 스님이 말씀 하되 “항해 나가려면 어긋난다” 한 것으로부터 “억지로 시비를 따지겠느냐” 하기에 여기에 이르러 조주는 천을 알고 백을 깨달았다.

이같이 도는 알거나 모르거나 속하지 않는다. 복을 갖춰야 한다. 남에게 이야기 할 수 없으며 남에게 전할 수는 더욱 없는 것이다.

그러다면 이같은 경지가 어떤 것인가? 대중이 대담이 없게를 잠자고 있다가 계송을 이르되 圍爐向禾通身暖 渡水敵冰鐵?寒 天上有星皆背北 家家門外直長安 외로를 끼고 불을 쪼이면 온 몸이 따스고 열음을 끼고 물을 건너면 뼈까지 시리다. 하늘의 별은 모두가 북극성을 따르고 집집마다 대문 밖은 집안으로 뚫렸다.

호국불교의 진정한 의미는 호법 불교

불교사회학 호국불교세미나 발제자 '정권유착' 경계에 한 목소리

“호국의 본질은 호법에 있다. 호국불교를 환경보호, 인권보호, 민주주의 수호 형태로 꾸려갈 수 있을 것이다.”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8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불교사에서 호국불교 전통의 재조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호국불교의 본질은 호법’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어용불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발제자로는 조준호 고려대 연구교수(사진)가 ‘경전상에 나타난 호국불교의 재검토’를, 김용태 연구교수가 ‘한국불교사에서 호국 사색 검토와 호국불교’를,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목판연구소장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호국불교 재검토’를 주제로 나눴다.

조준호 교수는 호국불교를 정법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 정의했다. 조 교수는 “호국의 개념은 본래 호법의 다른 말이다. 호국은 지배계급, 영토를 지키겠다는 좁은 의미가 아닌 불법, 불법의 땅, 만백성의 평화 등 보편적 진리를 지킴을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호국경전은 민생고를 해결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인왕경> <금광명경> <법화경> 등 호국삼부경을 예로 들어 “호국경전들에 자신이 속한 나라나 왕권이 수호돼야 한다는 사상은 찾아볼 수 없다. 호국경전들의 저변에는 민생고를 초래하는 것을 막는 것이 깔려져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준호 연구교수는 “호국불교는 공동체 살림의 승의제 차원의 호국과 세속적 방편 차원의 호국 이중적 구조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데 이중 본질인 승의제 차원은 반야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호국불교의 참정신을 살리자”며 △사신이 처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불교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제도를 모색하는



불교 △국경을 초월한 ‘사방승가’ 공동체 개념으로 확장(불교국가간 사방승가적 연대 구축) △범아시아 차원의 불교위

성방승 설립 △NGO 활동 다양화 등을 방편으로 제안했다.

조 교수는 이날 호국불교가 세속적 방편 차원으로 흐른 까닭에 대해 왕권이 왕권의 탄압, 예속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의식이 작음에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호국불교는 초기불교 등에 나타난 인종과 민족, 나라를 걸림 없이 넘나들며 가르침을 펼친 불교본연의 정신에 비추어 본다면 처절한 단상이지만 시대적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호성 동국대 교수도 이날 토론에서 “사방승가 공동체 이익 행복 제도적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성 교수는 호국불교의 거론에 대해 “불교는 본래 ‘호국불교’가 아니고, 이 시대도 역시 ‘호국불교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호국불교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용태 동국대 연구교수는 “한국불교의 호국은 왕권 우위의 역사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히 호국불교가 부각된 시기는 일본식민지 시기로 식민지 유산에 대한 정신적 청산없이 호국불교 개념을 계승할 순 없다”고 말했다.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목판연구소장도 “해방 이후에도 불교계는 호국불교 명목하에 정권유착을 유지했다. 불교계는 국가의 안정보다 불법을 지키는 호법불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9월 1일, 사찰법 제정 공청회 열린다

사찰법 제정을 위한 사부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마련된다.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9월 1일 14시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공청회 발제자로는 소위 위원장인 법안 스님이 나서며 토론자는 공찰과 사찰사람, 분사, 총무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물세 중이다. 장소는 아직 미정

이다.

사찰법은 사찰사람과 산내암자에 대한 정의와 규정을 담고 있어 논의의 전부터 교계 안팎의 높은 관심을 불러 모았다. 소위는 그동안 사찰법 제정안에 대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으며 소위와 집행부측 제정안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를 벌여 왔다.

박기범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께 드리는 글

감사1명을 학교법인 임원으로 선임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3항에는 “제2항에 의거 이사회 개최 시, 이 이사회에서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이운산축이 이사장을 -중략- 선임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이사장은 태고종 총무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직책이 아닌 이사회에서 선임·의결한다고 약조하였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은 현재 학교법인 동방대학교 개방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총무원장님과 학교 이사회는 무관하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발표 하였지만, 총무원장님이 현재 학교법인의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며, 총무원장님이 이사회에서 전 총무원장님이신 운산스님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무단퇴장 하였고, 운산스님 또한 태고종 이사 중 한 분입니다. 이사회 의결은 이사들 각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의결과정에서 총무원장님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에 따라야 합니다.

동방대학원대학교는 일부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과 다르게 학교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패와 비리에 방치되고 얼룩져 있다.” 고 발표 하였는데, 학교의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처리 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가 총무원장님 말씀대로 부패와 비리에 방치되어 있다면, 이사로 재직 중인 총무원장님의 심의, 의결이 있어야만 처리가 되는 사안이므로 총무원장님도 이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합니다.

학교법인의 모든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를 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으며,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은 학교법인 이사로 재직하면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법인정관을 무시하고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

총무원장님께서는 현재 학교법인 동방대학교 이사로 재직 중이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2011. 4. 19. 경찰청에 “태고종에서 대역한 대역금에 대하여 보고 내지는

확인도 받은 바 없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이 되었는지 수사해 달라.” 는 진정서를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성명서와 언론을 통해서 학교법인이 마치 부패한 것처럼 발표를 하면서, “중단에서 동방대학원대학 사태 해결에 적극 참여 하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무원장님께서는 학교법인과 무관한 것처럼 행동하며 문제가 있는 학교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태는 총무원장님께서 진정서를 내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혼자서 문제를 만든 것이며, 이를 또 혼자서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무원장 인공스님은 학교법인 및 학교비 예·결산 심의 시, 이사회 참석 회의록에 서명한 바 있고, 이사회 회의록은 감독청에 보고되었으며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는 이사가 자기의 흐름을 모르겠다고 진정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총무원장님께서 이사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불자들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까? 염려 됩니다.

2년 전부터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 하고 있는 총무원장 스님께서 학교법인은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로 운영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면서도,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고 학교법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아닌지 학교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지나친 결과라 생각합니다. 지나친 열정으로 인한 총무원장님의 행동을 불자들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행동으로 오해하여 존경하는 총무원장 스님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중단과 학교법인에 대한 지나친 열정을 자제하여, 자비의 마음으로 큰 틀 속에서 집착을 버리고, 부처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불교의 정통을 이어온 태고종의 총무원장스님께 걸맞는 존경받는 큰 지도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11일

학교법인 동방대학교